

항왜 장군 김충선(사야가 沙也可) 연구*

－ 일제강점기 한일의 인식과 역사적 평가 －

박 려 옥**

金忠善(1571-1642)は、沙也可という名前の日本人であった。壬辰倭乱(文禄の役)の際、武将として参戦した彼は、大義のない戦いと言って投降し、数々の戦功を立て、宣祖王より姓名を賜った。戦争が終わった後は、友鹿洞に隠居し、現在も子孫が住み続けている。このように歴史に残る人物であり、地域の多様性を象徴する金忠善に対する認識と評価は、日韓の歴史的状况によって変遷を辿ってきた。

本稿では従来見過ごされてきた、近代以降中でも植民地時代における金忠善に関する新出資料および散在している資料を整備しながら論考を進めた。金忠善は「降倭將軍」として再び脚光を浴び、新聞、野談、論文、雑誌などに登場し、当局の弾圧にも関わらず時代性と話題性を備えた「話素」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一方、金忠善に関する日本側の資料は現在確認できるどころ、1887年まで遡り、彼に対する関心がかなり早い時期から始まったことが分かる。それ以来、実存をめぐって論争が起こる一方、魅了される人々も少なくない。「国賊」、「不忠者」、「売国奴」、「混血児」、「非戦論者」など多様な金忠善像も生まれる。

本研究が金忠善に対する議論の場を広げ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願い、今後は金忠善と地域に関する研究を続けたい。

キーワード：金忠善、沙也可、慕夏堂文集、友鹿里、朝鮮研究会
(김충선, 사야가, 모하당문집, 우록리, 조선연구회)

1. 머리말

김충선(1571-1642)은 본래 사야가(沙也可)라는 이름의 일본인으로,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 휘하의 우선봉장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명분 없는 전쟁인 것을 이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B5A07035786]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전임연구원

유로 곧 투항하여¹⁾ 임진왜란, 이괄의 난 그리고 병자호란에서 큰 공을 세워 ‘삼란공신(三亂功臣)’으로 불리었으며, 선조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우록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은거하여 가훈과 향약을 제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공존에도 힘써, 400여 년이 지난 현재도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조상을 기리고 있다.

이렇듯 역사에 남을 공적을 세운 인물이자,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김충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본고에서는 종래 간과되어 왔던 근대기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김충선에 관한 한일의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충선 연구에서 이 시기의 한국 측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된 바가 없으며, 고찰의 대상은 일부 일제강점기 자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²⁾ 이에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관련 문헌을 발굴하여 이들 자료에 나타난 김충선에 대한 한일양국의 인식과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충선의 삶을 전하는 『모하당문집(慕夏堂文集)』에서는 투항의 동기로 이외에도 본래 중화와 조선의 문물을 사모(慕夏/慕華)하였으며, 자손을 예의의 나라인 조선에 살게 하기 위해서라 밝히고 있다.

2) 근대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 측 자료에 대해서는 야담집 『奇人奇事錄』에 수록된 김충선 이야기에 주목한 간호윤의 논고(후술)가 거의 유일하다.

한편, 李宝燮(2007) 「歸化武將沙也可(金忠善)に関する評價の変遷」(『広島修大論叢』第48巻 第1号、広島修道大学大学院研究会、pp.73-81) 및 김선기(2009) 「항왜 사야가(沙也可·金忠善)의 실존인물로서의 의미와 평가」(『한일어문논집』13, 한일어일문학회, pp.97-104)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김충선에 대한 평가를 개관하는 귀중한 선행연구이다. 다만,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의 한국 자료는 다루지 않으며, 김충선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 알려진 시데하라의 논고, 김충선의 실존과 문집에 대한 논쟁을 벌인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이에 대해 그 실존을 증명한 나카무라의 논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재범(2006) 「귀화 왜인 김충선의 사연」(『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세-』 한일관계사학회, pp. 105-108) 및 沈熙燦(2011) 「降倭「金忠善/沙也可」の表象と近代歴史学」(『日本研究』16、高麗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pp.397-40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김충선과 『모하당문집(慕夏堂文集)』

2.1 김충선의 삶

먼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투항하여 1642년 우록동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김충선의 삶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항왜(降倭) 장군으로서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전하고 있으며, 『모하당문집』³⁾에는 김충선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각종 문건 및 우록동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사서 및 문집을 근거로 김충선의 일생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충선의 일생

시기	연령	관련사항
1571	1	· 1월 3일 일본에서 출생(모)
1592	22	· 4월 13일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으로 부산상륙 · 4월 15일 침략의 뜻이 없음을 알리는 효유서(曉諭書) 발표 · 4월 20일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강화서를 보내고 휘하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귀순 · 11월, 본도병영에 조총과 화약 제조법을 가르치도록 주장 · 12월, 선조 종2품 가선대부의 벼슬을 내림(이상, 모)
1593	23	· 4월, 도원수 권율과 어사 한준겸 등의 주청으로 자헌대부로 승품, 선조 성과 이름을 하사(승, 모)
1597	27	· 정유재란 당시 김응서 휘하에서 전공을 세움(조, 모) · 조총 화포 제작, 사용기술 보급(모)
1598	28	· 1월, 울산 증성(甌城)에서 왜적을 대파(모)
1600	30	· 우록동에 정착. 진주 목사 장춘점의 딸과 혼인(모)
1603	33	· 여진족 침입, 북방 변방 방어 자청(모)
1613	43	· 10년간의 수호를 마치고 우록동으로 돌아옴(모) · 정2품 정헌대부에 가자(승, 모)
1615	45	· 장남 경원 출생
1617	46	· 차남 경신 출생
1620	50	· 삼남 우상 출생

3) 1798년, 김충선의 6대손에 의해 간행된 이후 표제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 재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제 본을 통칭하여 『모하당문집』으로 표기하였다.

1623	53	· 사남 계인 출생(이상, 모)
1624	54	· 3월, 이괄의 난 발생. 이괄의 부장인 항왜 서아지를 추포(승, 모)
1627	57	· 오남 경인 출생(모) · 정묘호란 발발. 항왜 자손 25명을 거느리고 종군(승, 모)
1628	58	· 가혼과 향약 마련(모)
1636	66	· 병자호란 발발. 광주 쌍령 전투에 부하인 항왜 김계충, 김계수, 김성인, 김귀성 등을 이끌고 출전(모)
1642	72	· 9월 30일 생을 마감(모)

※ 『조선왕조실록』(조), 『승정원일기』(승), 『모하당문집』(모)

특히, 「모하당문집」은 김충선의 일생을 망라한 유일한 자료이자,⁴⁾ 김충선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하당문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2.2 「모하당문집」의 간행

조선사회가 본격적으로 김충선에 주목하게 된 것은 사후, 약 150년이 지난 1798년, 6대손 김한조가 엮은 『慕夏堂年譜』⁵⁾가 간행된 이후이다. 사대부들은 문집의 내용을 인용하며 그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였고,⁶⁾ 성대중(1732-1812)과 성해응(1760-1839)은 2대에 걸쳐 김충선의 일대기를 기록하였다.⁷⁾ 이는 당시 「모하당문집」을 통해 김

4) 본 문집의 문헌학적 가치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本書는 宣祖, 光海, 仁祖(16-17世紀) 때 일어났던 倭亂·李适의 亂 胡亂 등 戰亂史에 관한 貴重한 內容과 당시의 社會相, 그리고 投化倭人の 實態 및 鳥銃 火炮·火藥 등을 普及시킨 데 대해 叙述되어 있는 중요한 遺集이다.』

남도영(1977) 「慕夏堂集」 『國學資料』 27, 장서각, p.10.

5) 초간본 『慕夏堂年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賜姓金海金氏族譜旧序 卷之一: 書·簡(30篇), 疏(5篇), 軍令狀, 鹿村誌, 慕夏堂記, 家訓, 約條 卷之二: 詩(2篇), 書(5篇), 狀, 行錄, 墓誌, 墓碣, 伝, 三道儒疏, 本道儒狀, 忠賢祠開基祝文, 上梁文, 奉安文, 常享祝, 竜蛇撫録, 跋

6) 채제공(1824) 『樊巖集』, 김진항(1833) 「金將軍忠善伝」 『麤山全集』, 이의숙(1836) 「金忠善伝」 『頤齋集』, 홍양호(1843) 『耳溪集』 등이 김충선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외에도 이유원(1871) 『林下筆記』에서는 귀화 ‘씨족’의 사례로 김충선을 소개한다.

7) 성대중(1840) 『靑城集』, 성해응(1840년 경) 「金忠善」 『研經齋全集』에는 김충선의 투항과 ‘삼란’에서의 공적이 기재되어 있다.

충선의 행적이 유포되었음을 말해주는데, 김한조는 문집의 간행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애석한 일은, 공의 남기신 글과 필적이 많이 있었으련만, 자손들이 잔미하게 살아왔고 또 중간에 화재로 인하여 간직하였던 유적이 백분의 一二도 보존되지 못하였으니 슬프고 죄스로운 마음, 어찌 심각하지 않았으랴. 다행스럽게도 무신년(정조12년, 1788년)에 내가 서울을 갔다가 마침 용강에 사는 김응서 장군의 후손 사눌씨를 만나서 서로가 세의를 말하다가, 선조의 유록이 그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 들었다. (중략) 함께 용강으로 내려가서 서적을 헤치니, 선조일생의 지절과 사업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지라, 이에 선조유고를 실록으로 하고 뒷날에 얻은 기록을 부록으로 하여 새로 상, 중, 하 三편을 만들었으나⁸⁾

(『慕夏堂年譜』1798)

시조에 대한 기록을 입수하고 문집을 간행한 데에는 정조 때, 임진왜란 200주년을 맞이하여 전란에서 공을 세운 인물을 현창하고 후손에게 상을 주던 시대적 상황 또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⁹⁾

문집은 개간과 증보를 거듭하는데, 초간본의 내용과 체제를 정비한 『慕夏堂文集』(1842)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발발 300주년에 즈음해서는 『慕夏堂實記』(1893)가 간행되었다.¹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로 번역한 『慕夏堂集』(1915)이 간행되면서 인물의 실존 및 문집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문집은 한일의 역사적 발자취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충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하, 근대¹¹⁾ 이

8) 賜姓金海金氏宗會(1996) 『慕夏堂文集 附實記』 賜姓金海金氏宗會, p.156.

9) 이외에도 조정이 김충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데 대한 후손의 답답함도 문집 발간의 배경이 되었다. 진병용·최용진·이정희·박려옥·이제상(2012) 『한일 평화의 가교 김충선(沙也可)과 우록리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p.25.

10) 이외, 발행연도 미상의 문집을 제외하고 『慕夏堂文集』(1902) 및 『慕夏堂文集及實錄』(1908)이 있다.

11) 한국 역사상, ‘근대’의 정의 및 시발점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나, 개항을 통해 새로운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한 1876년을 근대의 출발로 보는 현재 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문집을 둘러싼 한일의 동향 및 관련 자료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3. 김충선의 재조명

3.1 「모하당문집」의 재간행

다음은 김충선의 9대손 김용하가 밝힌 『慕夏堂實記』(1893)가 간행된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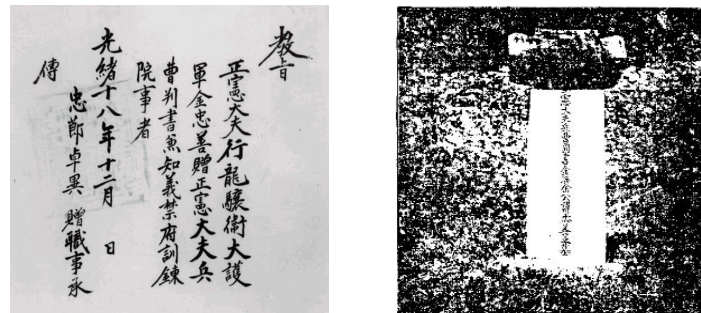
올해는 마침 임진년이라, 임금께옵서 지난 임진년 역사를 회고하시고 감개하신 나머지 충신 공신 열사들의 사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분부가 내린지라, 불초한 내가 본도 사림들 공의(公議)를 받들어 “증직을 내리고 향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글을 八月 二十일에 연명으로 올렸더니, 병조판서 벼슬로 증직하고 향례를 치르게 하라는 윤허(允許)가 내린지라, 그 다음해 계사년에 종숙 준목(準沐)씨가 모든 일가들로 더불어 돈을 모우고 힘을 합하여 묘소 앞에 비를 세우니 우리 문내(門內)의 경사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러나 우리들 후손된 자가 조상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면 어찌 가슴에 차는 한스러움을 면하리오. 선조(先祖)의 문집은 벌써 출판이 되었지마는 혹 빠진 글이 있고, 또 유림들과 덕망 높은 분들의 보내 주신 시(詩)나 문(文)들을 아직 인쇄에 부치지 못한 것을 누구나가 유감스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권의 책자를 엮어서 영구히 전하고자 하나 나의 넉넉지 못한 식견으로 어찌 소략된 잘못이 없다하리오.¹²⁾ (『慕夏堂實記』 1893)

임진왜란 발발 300주년과 더불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고종은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자를 보고하게 하였고, 김충선에 대해서는 병조판서 벼슬을 증직한 것이다. 이듬해에는 병조판

12) 鹿洞書院(1974) 『慕夏堂文集 附實記』鹿洞書院, pp.254-255.

서 제수를 계기로 김충선의 묘에 비문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행보가 문집의 재간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金忠善贈職教旨(1892.12)¹³⁾ 및 김충선의 묘비¹⁴⁾



일본인으로서 조선에 투항하여 충성을 다한 ‘항왜 장군’ 김충선에 대한 평가는 조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자와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3.2 ‘항왜 장군’ 김충선의 재조명

다음은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김충선을 재조명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 측 자료

저자	자료명
	『慕夏堂実記』(1893) / 『慕夏堂文集』(1902)
현재	『東国史略自序』『大韓毎日申報』(1906.10.17.)
김평묵	『重菴集』(1906)
	『慕夏堂文集 及実録』(1908)
신채호	『讀史新論』『大韓毎日申報』(1908.8.29.)

13) 한국사데이터베이스(2015.5.30. 검색)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FileName.do?itemId=fl&images=fl_s1330

14) 青柳綱太郎(1915) 『慕夏堂集』 朝鮮研究会、口絵.

안중화	『国朝人物志』(1909)
미상	서북학회 「金景瑞將軍伝」 제10호(1909.3.1.) *김경서 장군 이야기 가운데 김충선의 투항과 활약을 묘사
박승철	「慕夏堂에 처한 史的疑問」 『學之光』 19호(1920.1.26.)
송순기	「棄暗投明丈夫志能文兼武英雄才」 「奇人奇事」 『每日申報』(1922.1.27./1.28.) *신문연재 『奇人奇事錄』(상권1922/하권1923) *야담집
차상찬	「朝鮮文化의 基本調査(其二), 慶北道号 上 三百年前に 帰化한 大和魂 慕華堂 金忠善公의 奇行」 『개벽』 제36호(1923.6.1.)
차상찬	「드면錄!! 그때에 이리했으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었슬가, 丙子 胡乱때에 林慶業將軍을 信任하얏으면」 『별건곤』 제7호(1927.7.1.)
전우	『良齋集』(1927년 경)
차상찬	「上下半萬年の 우리 歴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 『별건곤』 제12·13호(1928.5.1.)
백기만	「大邱大邱大邱, 沿革 名勝古跡」 『별건곤』 제33호(1930.10.1.)
미상	「(逸史片片)旅臣尽忠金忠善」 『野談社』 제5권11호(1939.11.1.)

전시대에 이어 유림들의 문집에서 김충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김평묵(1819-1891)은 강개한 장군 김충선을 회고하는 시를 남겼으며,¹⁵⁾ 전우(1841-1922)는 ‘호걸지사’ 김충선을 찬양하였다.¹⁶⁾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문, 잡지, 논문, 야담(집) 등 다양한 매체에서 김충선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애국계몽사상 고취에 힘썼던 현채(1886-1925) 및 신채호(1880-1936)는 『大韓每日申報』에서 김충선이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높이 평가하여 귀순한 것을 이야기하거나,¹⁷⁾ 역사상 대표적 귀화 일본인으로 들고 있다.¹⁸⁾

15) ‘有感。懷慕華堂金將軍 忠善。日本將軍振義聲。陰陽向背獨分明。丹青古廟邱墟地。宗國潛壤萬里城。’(『重菴集』卷之三)

16) ‘慕夏堂金公 忠善 贊 天授英拔。早懷大猷。不待師教。已識春秋。公于我邦。厥有巍勲。百世之人。誰其敢謾。功成疏讓。恥深身隱。務耕勤學。種德行善。忠孝節義。寔本於是。鄒聖所稱。豪傑之士。噫此小華。滿地腥羶。九原可作。不辭執鞭。’(『良齋集』). 이외, 김평묵과 주고받은 편지 및 한일합방 때 순국한 열사들을 찬양하는 편지도 수록되어 있다.

17) ‘沙也可其人以部下三千歸義於我奔走疆場八載宜為我盡臣當其時也豈不知我疲弊衰微而然歟實慕我文物典章勝於彼故也’ 『東國史略自序』 『大韓每日申報』(1906.10.17)

18) ‘(人種(중략) 按 彼 蒙古・日本 兩族이 麗末 耽羅 牧胡와 世宗朝 三浦 降倭 等の 内地 雜居한 特例가 或 有하나, 其後에 皆 叛誅하고, 瓠公 金忠善(김충선)(此는 日

조선말기 학자 안종화(1860-1924)가 펴낸 『国朝人物志』(1909)에도 김충선이 등장하는데, 다음은 당시 신문에 실린 발간기사이다.

国朝人物志 史学の 十数年 専門家 安鍾和氏が 国朝人物志를 纂輯 発刊하였는데 国朝二十五朝의 宗室公子와 相臣卿士와 忠臣 烈士와 隱逸道德文章과 閭巷間基突의 徒와 邊塞上 靺靑의 將이 無一遺漏하고 此冊의 尽載하였는데 (『皇城新聞』 1909.2.2.)

조선건국 이래 철종까지 주요 인물의 공적을 모은 가운데 김충선은 그야말로 ‘충신열사’로 선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김충선의 행적을 전하며 그 출처를 ‘慕華堂集’이라 밝히고 있는데, 문집에 수록된 이의숙(1733-1807)이 쓴 ‘伝’(1796)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伝’에서는 당시 ‘사야가’가 박진에게 귀순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国朝人物志』에서는 김응서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내용이나 문체가 흡사하다.¹⁹⁾ 그런데, 『国朝人物志』는 1915년 9월 경무국에 의해 금지, 압수된다.²⁰⁾ 흥미롭게도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 당시는 ‘조선연구회’를 중심으로 김충선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자료 가운데 이색을 띄는 것이 바로 박승철(1897-?)²¹⁾의 논문이다. ‘추봉(秋峰)’이라는 필명으로 동경유학생 학우회 기관지 『學之光』에 발표한 「慕夏堂에 처한 史的疑問」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쓴 유일한 논고이다. 박승철은 김충선의 모하사상을 송시열 일파의 존명사상과 비교하거나, 존명주의를 표방한 경상도 유림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김충선이 실존인물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집에 대해서는 위서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본단 單指한 等 歸化한 者가 時有하나, 此는 數百年間 攄二人에 不過함.’ 『讀史新論』 『大韓每日申報』(1908.8.29)

19) 후일, 이의숙은 자신의 문집에서도 「金忠善伝」(1836)을 남겼는데, 김충선이 이각에게 귀순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괄의 난 때 보인 활약을 증보하였다.

20) 이증연(2001)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도서출판 혜안, p.431.

21) 초대 주미공사를 지낸 박정양의 차남으로, 1916년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여 『學之光』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약하였다.

慕夏堂은 槿域人士가 一般 崇尊하는 人物이지마는 그 尊崇하는 強度에 있어서는 矯南儒林諸家에 不及할 것이다. (중략) (모하당의 사상은) 朱子學의 感化를 받은 宋時烈一派의 尊明思想과 조금도 틀림이 없어 누가 보던지 歸化한 日本人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요 (중략) 史學的 知識이 없는 矯南儒林中에서 看羊錄을 읽은 이가 敵愾心을 일으키려고 尊明主義를 標榜하여 沙也可라는 歸化 日兵을 材料로 삼아 色彩를 바른 것이 아닌가 한다. (중략) 慕夏堂集은 偽書가 分明하지마는 沙也可는 歸化 日兵이었을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偽書가 慕夏堂 뿐 아니라 많을 것이요, 我國 뿐 아니라 支那 日本에도 多數임은 우리가 聞見한 것이다.²²⁾

(「慕夏堂에 對한 史的疑問」)

그러나, 여전히 문집에 의해 형성된 ‘김충선像’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졌고, 이는 송순기(1892-1927)²³⁾가 조선총독부 기관지 『每日申報』에 연재한 「奇人奇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棄暗投明丈夫志 能文兼武英雄才’라는 제목 하에, 문집의 한문체를 원토로 하고, 김충선이 귀순하는 장면을 각색하여 ‘문무를 겸비한 영웅’ 김충선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후일, 작가는 그동안 연재한 야사, 문집, 기담 등의 ‘奇人奇事’를 엮어 구할자본 야담집 『奇人奇事錄』(상/하)을 1922년과 1923년에 각각 간행하였다.²⁴⁾ 그런데, 김충선의 이야기가 수록된 하권만이 1937년 10월에 ‘치안’을 이유로 금서로 지정된다.²⁵⁾ 김충선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 금서 지정의 이유로 추론되고 있어,²⁶⁾ ‘김

22) 박승철(1920) 「慕夏堂에 對한 史的疑問」『學之光』19,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p.107, p.113, p.116, p.117.

23) 1919년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기자, 논설부 기자를 거쳐 1923년부터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였다.

24) 『每日申報』에는 1922년 6월 14일자 및 약 1년 후인 1923년 5월 18일자에 신간 소개를 게재하고 있다.

25) 이증연(2001) 앞의 책, p.491.

26) ‘하권에 보이는 김충선 이야기만이 유독 다른 야담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소였다. 김충선이 항왜란 점도 일제와의 긴장성을 더하는 대목이었다.’ / ‘이 김충선 이야기 때문에 〈기인기사록〉 하권이 금서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간호윤(2005) 「日帝下 禁書 『奇人奇事錄』下에 나타난 金忠善 話의 現在性 - 野談文學에 투영된 戰爭體驗의 篇幅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17, 우리문화회, pp.122-123/간호윤(2008) 『기인기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p.8.

충선'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가늠케 한다.

그리고, 차상찬(1887-1946)²⁷⁾이 『개벽』에 발표한 「三百年前に帰化한 大和魂 慕華堂 金忠善公의 奇行」은 문집을 토대로 한 김충선의 행적뿐만 아니라, 당시의 우록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급변한 후손들의 상황 및 일제가 벌이는 동화정책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의 子孫은 今에 100 余戸에 達하나 大概 無識하야 그 祖先의 事를 詳知치 못하며 今日까지도 그 祖先이 日本人인 것을 羞恥로 思하야 外人을 對할 時에 友鹿洞에 사는 것을 隱秘한다. 우리 朝鮮人은 金忠善을 漢의 金日碑와 如히 思하야 그를 稱讚하나 日本人으로 見하면 金忠善은 罪人이라 할 것이다. 特別히 我朝鮮人을 同化하라고 努力하는 今日에 300年前 朝鮮에 同化한 金氏를 對하면 感慨가 無量하다. (『개벽』 1923.6.1)

차상찬은 이후에도 잡지에서 조선이 김충선을 ‘항왜’라 하여 천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거나, 조선의 문화에 감화하여 귀순한 것을 강조한다.²⁸⁾ 이외에도 3·1운동 때 이상화와 함께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항일저항 활동을 펼친 지역출신 시인 백기만(1902-1966) 또한 대구의 ‘名勝古跡’으로 우록동을 소개하며 김충선 및 우록동 후손의 현황을 다루었다.²⁹⁾ 마지막으로 『野談社』에 수록된 「(逸史片片)旅臣尽忠金忠善」(1939)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용은 문집이 전

27) 시인, 수필가, 언론인으로 『개벽』에 한시와 수필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별건곤』, 『신여성』, 『학생』 등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 활약하였다.

28) ‘백만의 師를 能當하는 당시 老名將 金忠善(本명 沙也可니 元 日本名將으로 壬辰亂時에 來降한 자)은 降倭다 천시하야 軍戰에 任치 안코’ 「드면錄!! 그때에 이리 했드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었슬가, 丙子胡亂때에 林慶業將軍을 信任하얏드면」 『별건곤』 제7호(1927.7.1)

‘壬辰當時에 日兵의 先鋒將인 沙也可(慕夏堂 金忠善)가 倒戈 帰化하야 도로혀 日兵을 逆撃한 것은 平素부터 전혀 朝鮮의 文化에 感化한 所以였다.’ 「上下半萬年の 우리 歴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 『별건곤』 제12·13호(1928.5.1)

29) ‘慕夏堂 達城郡 嘉昌面 友鹿洞에 있으니 壬辰倭亂때에 加藤清正의 部將 沙也可라는 者 夏를 慕하고 朝鮮에 投降하야 日軍을 逆襲하얏다는 功으로 宣祖 그에게 金忠善이라는 姓名을 賜한 바이니 그 子孫이 代代로 友鹿洞에 住居하야 現在 一族이 100 余 戸에 達한다고 한다.’ 「大邱大邱大邱, 沿革 名勝古跡」 『별건곤』 제33호(1930.10.1)

하는 김충선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야담답게 구연체로 바꾼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国朝人物志』 및 『奇人奇事錄』이 이미 1915년과 1937년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 특히 ‘야담’에 재등장한 것이다.³⁰⁾ 이는 일제강점기 후반에도 김충선이 여전히 화제성과 시대성을 담은 ‘화소’로 민중에게 환영받았던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항왜 장군’ 김충선으로서 적극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던 당시, 일본의 김충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하였을까.

4. 일본의 김충선 연구

4.1 『慕夏堂集』의 간행

일제강점기 김충선에 관한 연구는 인물과 문집에 의문을 제기한 ‘조선연구회’의 ‘慕夏堂史論’과 실존을 증명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1902-1984)의 논고가 대표적이다. ‘조선연구회’는 1915년 『慕夏堂集』을 간행하면서 부록으로 ‘慕夏堂史論’을 발표하였는데, 문집을 간행하고 역사적 논쟁을 벌이기까지 그 경위를 살펴보자.

‘조선연구회’는 1910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가 조선 병합을 기념하여 결성한 조선연구 단체로,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 1877-1932), 기쿠치 겐조(菊地謙議, 1870-?), 오무라 도모노조(大村友之丞, 1871-?)가 참여하였다. 다음은 「조선연구회 창설 취지서」의 전문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의 인문을 연구하고 풍속 제도 구관 전례를 조사하여 施設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현 시대의 요구이다. 사교를 조리하고 사회 개선을 기도하며 고상한 취미를 더해 여유로운 감흥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필연적인 요구이다. 조선연구회는 이

30) 『野談社』는 1935년 김동인이 발행한 야담과 야사 중심의 잡지로 1945년에 폐간되었다. 집필자로는 김동인과 당대 만담가들이 참여하였는데, ‘김충선 이야기’는 잡지 뿐 아니라, 야담대회에서도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 연구하고자 한다.

요구에 성실히 공헌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따라서 유익한 조선의 書史를 간행하여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강연회를 개최하여 사물의 공구와 고상한 사교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혹은 저술 자선 교학 풍기에 관한 선량한 계획을 세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동지들은 분발하여 입회에 참가하시기를 바란다.³¹⁾

메이지 43년 10월 조선연구회

즉,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조선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있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古書珍書’를 간행하였다.

〈표 3〉 시기별 ‘古書珍書’ 목록³²⁾

제1기(1911~1912)	제2기(1914~1916)	제3기(1916~1918)
『角干先生実記』『看羊録』『東京雜記』『牧民心書』『莊陵誌, 平壤統誌』『經世遺表』『朝鮮野談集』『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戰記』(懲毖録)	『謝氏南征記』『九雲夢』『三国史記』『小華外史』『朝鮮博物誌』(山林經濟)『東国通鑑』『海遊録』『三国遺事』『慕夏堂集』附慕夏堂史論『漢唐遺事』『朝鮮外寇史』(東国兵鑑)『大韓疆域考』『燕巖外集』(熱河日記)『麗史提綱』	『青野漫輯』『李舜臣全集』『芝峰類說』『元朝秘史註』『国朝宝鑑』『増補文献備考』

조선의 고전, 실학서, 역사서 가운데서 출판된 『慕夏堂集』은 조선은 물론 일본과 대만, 만주에까지 유포되었다.³³⁾ 그리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연구회’는 도요토미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戰記』(懲毖録) 및 『李舜臣全集』을 간행하였는데,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전쟁’이라 규정하고 일본에 반

31) 大村友之丞(1910)『朝鮮貴族列伝』朝鮮研究会、附録.

32) 박영미(2013) 「일본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에 대한 시론 -조선연구회의 고서진서 간행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37, 근역한문학회, pp.301-305에 수록된 〈표 2〉 朝鮮研究会의 古書珍書刊行 목록을 참조하여 작성.

33) ‘회원은 일본 내의 각 학교와 지방단체 도서관, 경시청, 신문사 관공서와 만주 지역은 대련, 여순, 안동 남만주 철도회사 등 학교, 관공서, 신문사에, 대만지역은 총독부와 학교, 관공서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
최혜주(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423.

기를 든 김충선은 상당히 꺾끄러운 존재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慕夏堂集』에는 서문을 대신하는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아오야기³⁴⁾가 ‘慕夏堂史論’에 참여할 인사들에게 원고를 의뢰하며 보낸 서간문이다.

친구인 기구치 군이 일찍이 영남에 들어갔을 때, 녹촌의 주민이 기구치 군의 명성을 듣고 대표자를 세워 회담을 청했습니다. 기구치 군의 문장으로 모하당을 일본에 소개하고 또한 수백년 이래 가련한 녹촌민이 있다는 것을 데라우치 총감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곡히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구치 군은 위로하며 장난으로 이르길 “너희들의 선조는 일본에 반역한 국적(国賊)이다. 그 국적의 자손이 지금 영남에 번창한 것을 총감에게 보고한들 너희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녹촌의 주민이 과연 일본인이라 하면 귀화하여 이미 300년이 훨씬 지난 격세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선조가 살았던 산수,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이 없을까. 그러나, 그 문집을 읽은 식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고 혹은 북면의 조선인이라 논하는 자도 있습니다. 더구나 어느 쪽도 유력한 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애매하게 덮어두는 것은 실로 日朝 역사학계의 한스러운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이 기회에 명쾌한 해결을 내고 싶은 나머지, 다망한 가운데 송구스럽습니다만, 고견을 들을 수 있다면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³⁵⁾

(『慕夏堂集』 1915)

여기서 우록동을 방문하여 김충선을 ‘国賊’이라 칭한 ‘기구치 군’은 ‘조선연구회’의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기구치 겐조를 가리킨다. 그는 50년 이상을 한국에서 활동한 ‘조선통’이자 한국사를 왜곡 하였던 재야 역사학자로, 아오야기가 사망한 후에는 ‘조선연구회’를 주재하였다.³⁶⁾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1911년부터 1914년

34) 호는 南冥, 1903년 조선에 건너와 한국궁내부에서 조선사편수를 담당하였다. 1912년부터 조선연구회를 주재, 경성신문을 발간하고 사장을 지냈다.

35) 青柳綱太郎(1915) 『慕夏堂集』 朝鮮研究会, pp.3-4.

36) 하지연(2008) 「韓末・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 『동북아역사논총』 21, 동북아역사재단, p.215.

까지 경상북도 대구민단장을 지냈으며, 1912년에는 메이지 천황의 장례식 때 ‘경북민총’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구치가 우록동을 방문하여 후손을 만난 것은 그가 대구민단장을 지냈던 시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서간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김충선의 존재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오야기가 명쾌한 해답을 얻고자 서간을 보낸 이들³⁷⁾의 의견 또한 분분하다. 즉, 나이토와 아사미는 김충선의 실존 가능성은 있더라도 문집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이에 대해 야마지, 가와이는 반론을 펼치며 김충선에 대해 ‘혼혈아’, ‘매국노’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왜구가) 조선민족과 잡혼하였기에 이들 혼혈아 가운데 아군의 사정에 조금 밝은 자가 거짓으로 일본무장이라 칭하여 조선군에 투항한 것이 아닐까. (山道)³⁸⁾

오늘날 이와 같은 위서를 믿고 사야가와 같은 매국노가 동포 가운데 있었다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河合)³⁹⁾

반면, 후쿠다와 연준은 실존을 인정하는데, 논쟁에 참여한 유일한 조선인 연준은 아오야기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면으로 맞선다.

모하당 김충선 공은 일본인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옛날 노인들에게 모하당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 그곳에 가서 먼 후대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대구임을 알게 되었다. (중략) 금번 아오야기군의 글은 내가 이 서류를 부정하기를 바라지 않았

37) 총독부 경무총장 다치바나 코이치로(立花小一郎, 1861-1929), 교토제국대 교수 나이토 토라지로(内藤虎次郎, 1866-1934),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판사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1868-1943),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장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872-1918), 조선총독부 통역관 후쿠다 간지로(福田幹次郎), 전 조선일보 주필 야마지 조이치(山道裏一), 전 문부성 외국어학교 교사 연준(延濬)이다. 가와이와 후쿠다는 ‘조선연구회’ 평의원, 다치바나 또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38) 青柳綱太郎(1915) 前掲書, p.38.

39) 青柳綱太郎(1915) 前掲書, p.60.

나 싶다.(延潑)⁴⁰⁾

한편, 아사미는 송시열의 ‘小中華’ 사상과 관련지어 문집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박승철의 논고와 통하는 점이 있어 영향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⁴¹⁾

모하당이라는 아호도 뭔가, 조선인이 모화관을 설립한 후 『小華外史』가 유행했던 무렵의 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물안 개구리인 송시열 무리의 사상에 감염된 시골뜨기가 그 가계가 김씨 성인 것을 소설적으로 날조하여 향당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다.(淺見)⁴²⁾

이렇듯 『慕夏堂集』을 간행하고 ‘慕夏堂史論’을 전개한 것은 애초부터 김충선을 부정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오야기의 김충선 부정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慕夏堂史論’ 이후에도 여전하다. 무엇이 이토록 아오야기로 하여금 김충선 부정론을 펼치게 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자.

〈그림 2〉 ‘조선연구회’와 조선고서⁴³⁾/ 나카무라와 김충선 후손⁴⁴⁾



40) 青柳綱太郎(1915) 前掲書、pp.11-12.

41) 青柳綱太郎(1916) 『新朝鮮』 朝鮮研究会、附録「朝鮮研究会會員録」에 박승철이 유학한 와세다대학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어, ‘慕夏堂史論’을 계기로 논문을 집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42) 青柳綱太郎(1915) 前掲書、p.8.

43) 青柳綱太郎(1916) 前掲書、口絵「地方會員へ古書発送の光景」

44) 한국사데이터베이스(2014.12.3. 검색) 1933년, 우록동 답사 때 사진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l&setId=589505&position=10>

4.2 ‘国賊’에서 ‘大の非戦論者’까지

다음은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확인된 김충선에 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 측 자료

저자	자료명
	「沙也可の履歴」『時事新報』(1887.5.18.)
幣原坦	「沙也可」『歴史地理』10(1904)
大垣丈夫	「本会の将来(続)」『皇城新聞』(1907.4.27.)
	우록동 『慕夏堂文集』 반출(1908.10.11.)
青柳綱太郎	「慕夏堂 日本武人と自称する金忠善」『日韓史蹟』(1910)
奥田鯨洋	「慕華堂 日本無双の不忠者」『日韓古蹟』38(1911)
	「最近의 大邱」『毎日申報』(1912.3.27.)
	『慕夏堂集』附録慕夏堂史論(1915)
幣原坦	「慕夏堂」『朝鮮史話』(1924)
青柳綱太郎	「慕夏堂史話」上下『朝鮮史話と史蹟』(1926)
中村栄孝	「慕夏堂金忠善に関する史料に就いて」『青丘学叢』12(1933)
中浜究・山重雄三郎	『大邱案内』(1934)
朝鮮総督府 中枢院	『朝鮮姓名氏族に関する研究調査』(1934)
朝鮮総督府 中枢院	『朝鮮人名辞書』(1937)

우선, 김충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자료는 1887년 5월 18일자 『時事新報』⁴⁵⁾의 ‘雜報’에 실린 「사야가의 이력(沙也可の履歴)」이다. 기사에서는 그가 원래 일본인이며, 도요토미 군의 선봉이 되어 조선에 상륙하자 곧 투항하여 조선을 위해 공을 세운 인물이라 소개한다. 그런데도, ‘일본의 역사에는 이 사실을 빠트려서 알

45) 1882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창간한 일간신문이다.

고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 번 회사 동료가 조선인에게 물어 본 바, 그 대답을 얻었기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이를 세상에 알린다'며 보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에 사는 조선인의 회답을 통해 투항 경위, 첩포 제작, 북방 방위, 성명의 하사 등 김충선의 행적을 상세히 전하며 문집과 모하사상까지 덧붙인다.

유서(遺書)로 慕華堂文集이 있습니다. 시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소생이 지금 그 문집을 찾고 있으니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경성에서

추신 일본에 사야가와 비슷한 성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중국을 대중화로 하고 조선을 소중화라 하였기에 사야가가 慕華堂이라 칭한 것은 조선과 중국 양국을 경모한다는 의미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時事新報』 1887.5.18.)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우호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후 자료에서는 실로 다양한 '김충선像'을 보여 준다. 시데하라 다다시(幣原坦, 1870-1953)⁴⁶⁾는 『歴史地理』(1904)에 투고한 「沙也可」에서 김충선의 사적은 믿을 수 없으며, 후손 김한조가 만들어 낸 이야기로 규정한다. 이에 멈추지 않고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용감한 기요마사의 선봉으로 처음부터 전의가 없는 열간이 무사를 선발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거나, '겐기·덴쇼시대의 가정에서 자란 무사의 면목이 조금도 없고, 일종의 쓸모없는 선비와 같은, 조선 냄새로 가득 차 있다'⁴⁷⁾며 신랄히 비판한다.

한편, 김충선은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 1862-1929)⁴⁸⁾의 연설문 가운데서도 등장한다. 오가키는 자신을 김충선에 비유하고 있는

46) 동양사(조선사)학자.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로서 1902년 '한국연구회'를 설립하였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 학부의 학정참여관으로 임명되었다.

47) 幣原坦(1904) 「沙也可」 『歴史地理』第十卷第一号、日本歴史地理研究会、p.40.

48)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에 공헌한 인물로, '대한협회', '대한자강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고문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연구회' 회원으로도 참여하였다.

데, 이는 김충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日鮮) 융화사상에 근거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本會에 顧問을 置함은 國事를 思하는 念이 緊切한 故오. 又 況壬辰亂後에 慕夏堂 金忠善은 日本人이라 余는 東洋大騷亂後에 韓國에 渡來하여 自強獨立의 大義를 首唱함이 或은 天祿에 基함인지 金忠善은 二十二歲에 渡來하고 余는 四十七歲니 余命이 短小하고 任務가 重大하여 夜間에 此에 想到하면 感慨함을 禁止하기 不能함이 有한지라

(『皇城新聞』 1907.4.27)

이듬해에는 대구에 사는 일본인들이 우록동을 방문하여 문집의 원판을 반출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음은 규장각 소장본 「모하당 문집」(奎 6529)에 부기된 간행 경위를 나타낸 것이다.⁴⁹⁾

대구에서 동남 5리 부산가도에 해당하는 팔조령 산간에 우록동이라 칭하는 곳이 있다. 옛날 文祿의 役 때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가 반기를 들어 明軍에 투항, 일본군을 역공한 공을 세워 韓廷으로부터 관록을 하사받았다. 노후에는 이곳에 은퇴하여 그 자손이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在大邱同好 사람들 30여 명이 올 10월 11일 그 자손을 방문하여 일본 민족이 어느 정도로 韓化되었는지를 견문하였다. 그 때 동민이 비장하던 본서의 원판을 발견한 바, 이를 인쇄하여 慕夏堂遺族 見聞隊의 기념으로 삼는다.

한국 대구에서

메이지 41년 11월 20일

竹内卷太郎 村松祐之 西川熊助

즉, 1908년 경상북도관찰도서기관 다케우치(竹内卷太郎), 공립대구보통학교 본과 훈도 겸 교감 니시아마(西山熊助)⁵⁰⁾ 등 30여 명이

49) 이하 인용문에서 ‘東南十里’는 ‘東南五里’, ‘本書ノ原稿’는 ‘本書ノ原版’으로 朱筆로 수정되어 있다. 정황상 수정된 내용을 채택하였다.

50) 1909년 순종황제 순행 때 대구에서 영접 준비를 한 공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

김충선의 존재를 전해 듣고 우록동의 후손을 방문하여 ‘일본 민족이 어느 정도로 韓化되었는지를 견문’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소장하던 문집의 원판을 발견하고, 이를 인쇄하여 ‘모하당유족견문대’의 기념으로 삼았다는 전말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라도 한 듯,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던 해에 아오야기는 『日韓史蹟』(1910)에서 「모하당 일본무인이라 자칭하는 김충선(慕夏堂 日本武人と自称する金忠善)」라는 제목 하에 강화서, 상소문, 모하당기, 녹촌지, 가훈 등 문집의 주요 내용을 원문으로 실으며 김충선을 부정한다.

세상에 배움이 얹은 역사가가 있어 사야가의 황당무계한 큰 소리에 현혹되어 당당하게 기요마사 선봉의 부장이라고 하거나 혹은 일본무인이라고 결단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그 난폭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⁵¹⁾ (『日韓史蹟』)

이후, 김충선은 ‘일본의 둘도 없는 不忠者(日本無双の不忠者)’⁵²⁾로 불리는가 하면, 그의 묘소를 찾는 일본인의 기사도 확인된다. 대구 경찰서장이 지방순시 도중에 ‘古跡’ 우록동을 방문하여 그 후예와 함께 묘소를 참배하였다는 내용이다.

警察署長古跡歴訪 当署安藤署長은 過般地方巡視・하는 途次에 大邱友鹿洞에 到하여 故慕夏堂金忠善氏の 遺処를 歴訪하여 該後裔와 共に 墓所に 参拝하고 (『毎日申報』 1912.3.27)

이와 같이 김충선의 존재와 행적을 믿는 풍조가 아오야기로 하여금 ‘慕夏堂史論’을 기획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慕夏堂史論’ 이후의 동향을 보면, 시대하라는 과거 『歴史地理』에서 논한 김충선 실존 및 문집의 진위여부를 『朝鮮史話』(1924)에서 다시 제기한다.

는 인물들이다.

51) 青柳綱太郎(1910) 『日韓史蹟』 町田文林堂、p.254.

52) 조선총독부 기관신문사 경성일보의 기자 오쿠다 게요(奥田鯨洋)는 「慕夏堂 日本無双の不忠者」라는 제목으로 김충선의 행적과 우록동의 자손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奥田鯨洋(1911) 『日韓古蹟』 日韓書房、pp.149-154.

아오야기 또한 『朝鮮史話と史蹟』(1926)에 두 차례에 걸쳐 김충선에 대한 논고를 발표하며, 김충선을 ‘가장(假裝)·가공(架空)’의 인물로 규정한다. 그리고, 「모하당문집」은 조선의 문인이 피폐, 위축된 인심을 고무시키고 ‘대일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소설적 위작’이라 결론짓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술도 눈에 띈다.

모하당이 위작인 것은 따로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식자라는 사람들 중에 모하당에게 매료된 자가 많은 것은 역사계를 위해 진심으로 유감을 느끼는 바, 나는 이러한 거짓된 역사를 매장하기 위해 모하당 사화를 엮은 것이다.⁵³⁾
(『朝鮮史話と史蹟』)

즉, 김충선에 대한 강한 부정과 비판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의 행적에 관심을 보이고 믿는 자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윽고 1933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수사관(修史官) 나카무라 히데타카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각각 ‘降倭僉知沙也加’, ‘降倭領將金忠善’의 기록을 발견하여 김충선의 실존을 증명한다.⁵⁴⁾

나카무라의 논증 이후, 김충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大邱案内』(1934)에서는 대구의 명소로 우록동을 소개하며 김충선을 ‘위대한 비전론자(大の非戰論者)’로 부르기에 이른다.

시의 남쪽, 옛 부산가도의 험준한 팔조령 기슭에 있는 한 부락으로 가창면에 속한다. 이 부락은 모두 김씨 성인데 이는 옛날 가토 기요마사의 신하인 沙為可(??)라는 위대한 비전론자(大の非戰論者)가 조선에 귀화한 것으로, 당시 국왕으로부터 김씨 성을 하사받아 이곳에 살며 사슴을 친구로 삼고 유유자적하였다. 그래서 그 자손이 이 부락을 형성하였다고 전해지며, 종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품이 있다고 한다.⁵⁵⁾

(『大邱案内』)

53) 青柳綱太郎(1926)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会, p.497.

54) 中村榮孝(1933) 「慕夏堂金忠善に関する史料に就いて」 『青丘学叢』12、青丘学会、pp.167-169、pp.173-175.

55) 中浜究・山重雄三郎(1934) 『大邱案内』 麗朗社, p.98.

그 밖에도,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선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朝鮮 姓名氏族に關する研究調査)』(1934)에서는 김충선을 ‘외국계 성씨’의 사례로 수록하면서, 조선의 문물을 사모하여 투항한 뒤 공적을 세운 문집의 내용을 인용한다. 반면,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펴낸 『朝鮮人名辭書』(1937)와 같이, 문집을 인용하여 김충선의 일대기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기요마사의 장수로 그러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본서도 위서라는 말이 있다. 다만 여기에 기록해 두고 후고(後考)를 기다린다.’⁵⁶⁾며 여전히 실존을 부정하는 자료도 발견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발굴한 문헌 및 산재해 있는 관련 자료를 통해 김충선에 대한 한일의 인식과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았다. 김충선은 조선의 문물을 높이 평가하여 귀순한 ‘항왜 장군’으로 재조명되면서 문집, 신문, 야담, 논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였다.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존재로서, 당국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화소’로 조선 민중들에게 환영받았다. 한편,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1887년 신문에 그 이름이 등장한 이래, 실존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한편 문집이 전하는 행적을 믿으며 ‘매료’된 이도 적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그 후손에 대한 관심과 우록동이 ‘古跡’으로 명소화되어 가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国賊’, ‘不忠者’, ‘売国奴’, ‘混血児’, ‘非戰論者’ 등 다양한 ‘金忠善像’이 존재하였다.

오늘날 ‘김충선 연구’는 한일의 역사적 과제이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귀중한 연구라는 의미도 지닌다. 2012년 우록리에는 ‘달성한일우호관’이 개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김충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지 않는 실정이다.⁵⁷⁾ 김충선

56) 朝鮮總督府中樞院(1937) 『朝鮮人名辭書』朝鮮總督府中樞院、p.954.

57) 1990년대 ‘모하당사상연구회’를 전신으로 하여 2005년에 발족한 ‘김충선연구회’는 지역의 유일한 연구모임이다.

이 어떻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공존하였는지, 항왜의 자손으로서 오늘날까지 가문을 이어온 후손과 지역 사회와의 역사적 관계 등 지역 관련 연구도 남아 있다.

본 연구가 김충선 연구의 학문적 논의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에는 김충선과 지역에 대한 자료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간호윤(2005) 「日帝下 禁書『奇人奇事録』下에 나타난 金忠善 話의 現在性 - 野談文學에 투영된 戦争體驗의 篇幅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17, 우리문학회, pp.122-123.
- _____(2008) 『기인기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p.8.
- 김진기(2009) 「항왜 사야가(沙也可·金忠善)의 실존인물로서의 의미와 평가」『한일어문논집』13, 한일어문학회, pp.97-104.
- 남도영(1977) 「慕夏堂集」『國學資料』27, 장서각, p.10.
- 鹿洞書院(1974) 『慕夏堂文集 附夷記』鹿洞書院, pp.254-255.
- 박승철(1920) 「慕夏堂에 對한 史的疑問」『學之光』19,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p.107, p.113, p.116, p.117.
- 박영미(2013) 「일본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에 대한 시론 - 조선연구회의 고서진서 간행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37, 근역한문학회, pp.301-305.
- 賜姓金海金氏宗會(1996) 『慕夏堂文集 附夷記』賜姓金海金氏宗會, p.156.
- 沈熙燦(2011) 「降倭「金忠善/沙也可」の表象と近代歴史學」『日本研究』16, 고려대학일본연구센터, pp.397-407.
- 이재범(2006) 「귀화 왜인 김충선의 사연」『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세 -』한일관계사학회, pp.105-108.
- 이중연(2001)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도서출판 혜안, p.431, p.491.
- 朝鮮總督府中樞院(1937) 『朝鮮人名辭書』朝鮮總督府中樞院, p.954.
- 진병용·최용진·이정희·박려옥·이제상(2012) 『한일평화의 가교 김충선(沙也可)과 우록리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연구원, p.25.
- 최혜주(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대동문화연구』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423.
- 하지연(2008) 「韓末·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동북아역사논총』21, 동북아역사재단, p.215.
- 青柳綱太郎(1910) 『日韓史蹟』町田文林堂, p.254.
- _____(1915) 『慕夏堂集』朝鮮硏究會、口絵, pp.3-4, p.8, pp.11-12, p.38, p.60.
- _____(1916) 『新朝鮮』朝鮮硏究會、口絵、附録.
- _____(1926) 『朝鮮史話と史蹟』朝鮮硏究會, p.497.

- 大村友之丞(1910)『朝鮮貴族列伝』朝鮮研究会、附録.
 奥田鯨洋(1911)『日韓古蹟』日韓書房、pp.149-154.
 幣原坦(1904)「沙也可」『歴史地理』第十卷第一号、日本歴史地理研究会、p.40.
 中浜究・山重雄三郎(1934)『大邱案内』麗朗社、p.98.
 中村栄孝(1933)「慕夏堂金忠善に関する史料に就いて」『青丘学叢』12、青丘学会、pp.167-169、
 pp.173-175.
 李宝燮(2007)「帰化武将沙也可(金忠善)に関する評価の変遷」『広島修大論叢』第48巻第1
 号、広島修道大学大学院研究会、pp.73-81.

『時事新報』1887.5.18.
 『大韓毎日申報』1906.10.17. / 1908.8.29.
 『皇城新聞』1907.4.27. / 1909.2.2.
 『毎日申報』1912.3.27. / 1922.6.14. / 1923.5.18.
 『개벽』제36호(1923.6.1.)
 『별건곤』제7호(1927.7.1.)/ 제12・13호(1928.5.1.)/ 제33호(1930.10.1)
 한국사데이터베이스(2014.12.3. 검색)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l&setId=589505&position=10>
 한국사데이터베이스(2015.5.30. 검색)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FileName.do?itemId=fl&images=fl_s1330

*일본어 본문 및 각주의 한국어 번역은 집필자에 의한 것이다.

*한글 고어체는 현재의 한글 표기로 바꾸었다.

성 명(한 글) : 박 려 옥

(한 자) : 朴 麗 玉

(영 문) : Park, Lyo-Ok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Kim Chung-Sun(sayaka), A Japanese Surrendered
 General - The Recognition and Historical Valu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소 속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전임 연구원

E-mail : dorothy0509@hanmail.net

투 고 일 : 2015년 6월 29일

심 사 일 : 2015년 7월 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7월 29일